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펴놓는 심장에 새겨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충정의 땀방울을 흘리며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온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 군사교육기관, 련관부문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길 조선인민군 유통대장이 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리영래, 강호범, 김상철, 진용철, 리선학, 군관들인 유덕철, 윤호진, 림설, 공영길, 조영수 등이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산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령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탕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장령 김락겸, 군관들인 황용운, 주인수, 유덕철, 김경수, 공영길, 림장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령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례없이 큰 규모로 특색있게 진행된 이번 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훈련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훈련혁명을 일으켜 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전투준비를 완성하고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

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훈련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본 대회에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훈련혁명의 목표는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 싸움군으로 준비시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혁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혁명수행에서 중심고리는 훈련을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훈련일군대회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훈련의 질을 높임으로써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5대 훈련방침을 제시하신 40돐, 위대한 장군님께서 4대 훈련원칙을 제시하신 2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의 전군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는 반미대결전을 눈앞에 둔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밀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참가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은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대회참가들이 훈련이자 혁명보위,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사위는 아직 어두운데 저켠 동녘하늘이 푸르스름히 열리더니 불현듯 구름사이로 한점의 새빨간 미명이 뛰여올랐다. 이윽고 그 한점의 미명이 점차 붉은 선으로 굽게 퍼져오르면서 잠간사이에 구름떼를 뒤번져놓으며 하늘이 어데고 땅이 어데나실게 높은 기암절벽들과 천지의 푸른 수면, 아득한 바다를 온통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여놓는다. 불쑥 시뻘건 구름장을 달구어녹이며 이글거리는 커다란 불덩이, 태양이 솟구쳐오른다. 눈부신 채광으로 온 하늘과 땅을 불불이며 두동실 떠오르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지없이 황홀하고 매혹적이다.

이것은 백두산의 해돋이순간을 그린 한 작가의 묘사다. 이렇게 천하제일명산 백두산의 해돋이장면은 정말로 극적이다.

지난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찾으시였다. 초당 25m의 눈보라 강풍으로 눈가루, 돌가루, 얼음가루가 사정없이 휘둘려졌지만 헌현한 기상으로 산정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시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금 그이께서 찾으신 백두산이다.

맑고 고요한 날이 아니라 맵짠 칼바람이 휙몰아치는 날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사나운 눈보라를 훈풍처럼 맞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많은것을 생각한다.

이 땅의 모든 산줄기들이 백두산에서 뻗어내린것으로 하여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종의 산으로 숭상하며 슬기롭고 용감하고 깨끗한 민족의 넋이 백두산에서 태여났다고 간주하여왔다. 백의민족의 상징으로, 마음의 기둥으로 여기고 자랑하였다.

백두산이 민족의 구심점으로, 희망의 동대로 겨례의 마음속에 더욱 굳게 자리잡은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두의 험준한 산발들을 넘나드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신 때부터이다. 항

백두산으로 가는 길



백두산 해돋이를 부감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일의 전설적명장으로 명성떨

되였다.
치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리

백두산에 장수별 솟았다고 우

리 겨레는 얼마나 기뻐하였던

가. 그 마음의 기둥이 있어 사

람들은 일제의 가혹한 억압속

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켜올수

있었고 새 조선이 일떠설것이

라는 희망속에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백두의 험준령

을 넘나드시며 벌리신 퍼어린

항일대전은 이 땅에 조국해방

의 새봄을 안아왔으며 지구상

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는 새 시대를

펼쳐놓았다.

그래서 한 시인은 조국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업적

을 『백두산』이라는 장편의

시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했고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백두산

을 마음의 기둥으로 안고살게

되었다.
한일의 그 나날 설한풍 휩

쓰는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시

여 격전의 총포성을 자장가

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슬

기와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셨

고 영장의 담력과 배짱도 키우

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

의 풍모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수십성상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

하시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강

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시였다.

시련을 박차야 하는 어려운

때, 혁명이 위대한 전환에로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여 선군의 보

검을 억척같이 틀어쥐시고 조

국을 수호해가실 철의 신념파

의지, 고난을 박차고 강성국가

를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 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

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으실

옹대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일제의 총칼밑에서 그

빛을 잃어가던 백두산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해 조

종의 산, 민족의 성산으로 자

기의 존엄과 위용을 되찾았다

면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백두

산은 민족의 영원한 승리의 상

징으로 빛날수 있게 되였다.

바로 민족의 넋파 존엄이 용

축되여있는 백두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오

르시여 전투비행사들에게 백

두의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

을 심어주시였으니 이는 백두

의 기상을 체현하신 천출명장

의 위인상을 심장으로 느끼게

하는것이다.

지난해에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

만 그 모든것을 뒤로 미루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또다시 백두산에 오르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투비행사들에게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걸, 영광님 친선혁명의 명맥을 끊어 이어가는 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얹쳐같이 심어주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삼복의 무더위도, 눈보라 세찬 폭설길도, 파도세찬 바다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는 그이의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조선속도가 창조되고 이 땅에 눈부신 기적과 전변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백두산으로 오르고있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라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전민의 심장의 노래가 되여 온 나라에 유통되자고 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조선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가는 길이며 이땅우에 하루빨리 통일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길이기에 겨례의 백두산행렬은 출기차게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들으며

최근 공화국에서 새

로 창작되어 사람들속에

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

가 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의 노래이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

백두산!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들뜬다.

마치도 유기체의 피줄 기인양 삼천리강토에 뻗어내린 모든 산맥이 그 시원을 두고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은 민족의 넋이 깃 들어있고 조선의 기상이

옹축되어있는 성스러운

곳이며 승리의 상징인것

이다.

일제의 발굽밑에서 겨

례가

신음하던 암담한 시

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따라 항일빨찌산들이 빠

를 깎는 추위, 모진 깊은 추위

림을 이겨내며 백두왕야

에서 강도 일제를 전률케

했고 그 무엇에도 견줄수

없는 백절불굴의 혁명정

신을 창조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곤질긴

봉쇄와

고립압살책 동으로 시련을

겪던 그 시기에는 추호의

동요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수천수만의 군대와 인민

이 백두산에로의 신념의

행군길을 걸었다.

그리고 있다.

지난 4월 백두산정에 거

연히 서시여 백두산칼바

람을 맞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뇌리를 친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님 친선혁명의 명맥을 꾹꾹이 이어가는 길이다.

그렇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이 민족의 무궁한 번영파 인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길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시도 백두산을 잊으신적 없고 그 무엇도 백두산을 떼여놓고 생각하신적 없으시였다. 남달리 백두산

을 사랑하시며 백두의 슬기와 기상을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분, 온 나라에 백두의 정신이 나래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본사기자 리경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산수수려하고 살기 좋은 온갖 조건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는 좋은 자리로 명당, 명당자리라고 부르며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했다.

산을 등지고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위치 좋은 곳에 남쪽을 향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리상적이라하여 『배산립수』, 『자좌오향』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세상을 둘러보면 땅은 넓어도 명당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어서 명당자리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독점물로 되어 있고 대기업의 본사나, 은행, 정부 건물들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훌륭한 명당자리의 주인들도 다름 아닌 근로하는 인민들이다.

본사편집국에서는 이번 호부터 인민의 웃음이 풀려나는 명당자리들을 소개한다.

* * *

자고로 선조들은 둑을 우거진 모란봉의 청신한 기운이 감돌고 구슬같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명당중의 명당이라 일컬었다.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사랑의 궁전들이 련이어

하기에 옛 문인들은 대동강에 대한 수많은 시

가를 지어 후세에 전해

려워왔으니 고려시기의

학자이며 시인이었던 김

인촌은 『대동강』이라

는 시에서 『천년도록

감탄하나 아직 다른 표

현 못해라』라고 했고

12세기 『보한집』의 저

자인 최자는 『자연풍경

이 또한 아름다워 대동강

은 천하의 절경이다.』라

고 서술하였다.

바로 이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로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새로 일떠

서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

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초 평양시양

로원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평양시양로원이 일떠

서는 곳은 당에서 아끼던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양로원을 보양생들이 여

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

금자리로 꾸릴테 대하

여 간곡한 말씀을 하시

였다.

나이가 들면 물좋고 공

기가 좋으며 조용한 곳에

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

는 것이 늙은이들의 소망

이라 한다. 자식들의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로인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나라의

령도자께서 전설을 말기

하시고 친히 위치까지

잡아주신 평양시양로원

은 대동강을 옆에 끼고

수림이 우거져 있어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그야말

로 명당자리이다. 공기

좋아, 경치가 좋아, 소

음도 없어 늙은이들이 여

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

내기에는 아주 리상적인

장소이다. 머지 않아 생

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

게 최상의 조건이 보장된

훌륭한 양로원이 이곳에

일떠서게 되면 대동강반

에는 행복의 숲속, 대동

강반을 거니는 로인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양로원과 멀지 않은

곳에는 온 나라가 다 아

는 아이들의 행복의 궁전

인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자리잡고 있다.

세상에서 불행의 대명

사로 불리우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조선에서는 열

마나 행복하고 온 나라의

관심 속에 떠받들리우며

사는 가를 한폭의 그림처

럼 보여주는 평양육아원

과 애육원이다.

누구나 가보고 경탄하

며 부모 있는 아이들도 부

대동강을 옆에 끼친 이 육

아원, 애육원을 높은 곳

도 제일 경치 좋은 곳에 자

리를 정해주어 최상의 수

준에서 일떠서게 된 양로원

이나 『세상에 부럽없어라』는 아이들

의 노래가 끝없이 울리고

있다.

세상에 부럽없는 아이

들의 노래소리와 함께 대

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는

기서는 언제나 『세상에

부럽없어라』는 아이들

의 일떠서게 될 양로원

이야말로 어린이들과 로

인들의 기쁨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

랑의 집, 행복의 보금자

리이다.

『세월이야 가보자지』라는 로인들의 즐거운 노래 소리도 머지않아 함께 울리게 될 것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솟은 육아원과 애육원뿐 아니라 이제 일떠서게 될 양로원

이야말로 어린이들과 로

인들의 기쁨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

랑의 집, 행복의 보금자

리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애국의 넋과 민족의 기상을 본다

모든 교정들에서 새 학년도의 문을 연 그무렵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교육현황을 지켜본 우리는 정보산업시대에 걸맞게 기울이는 학과목교수의 내용과 방법의 부단한 개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더우기 주목을 끈 것은 어문학부에서 문학창작과 연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발한 다매체문화교육지원프로그램이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푸른 소나무』로 단대 대해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푸른 소나무를 사랑한다고, 민족해방과 조선독립에 한생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과 강직한 절개와 기상을 뜻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사랑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럴만 했다. 대학교가에도 지원의

높은 뜻이 빛을 뿌리는 나의 학자이라는 구절이 있고 학생들의 앞섶에 나는 대학휘장에 도 지원이라는 글귀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하긴 대학의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교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라락장송을 배경으로 하고 지원이라는 글을 새긴 서화작품이다. 결국은 그대학이 김형직 선생님의 웅지이고 절대불변의 기개인 지원과 소나무를 교단의 상징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재삼 짚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푸른 소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굳센 나무는 거센 바람앞에서 안

다는 말도 있고 불속에서 강쇠

를 알아본다는 말도 있는 것처

럼 자연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

하지 않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사랑했

다. 장수를 소원하여 부치는

십장생을 봐도 대나무, 불로초 등과 함께 소나무를 꼽았고 인간의 변함없이 결곡하고 강인함을 소나무와 참대에 비겨 『송죽같은 절개』라는 성구도 썼다.

세월의 찬눈비와 모진 바람에도 굳세인 생태를 달리 하지 않는 소나무에 대한 사랑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타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과 소나무를 교단의 상징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재삼 짚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세월 반일독립의 길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8년 평

양 만경대에서 투쟁무대를 더

넓은 지역으로 옮기시면서

자신의 심증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구에 담으시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

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로 시작되는 시에는 이 한

몸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

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 삼천

리에 양춘을 찾아오리라는 선

생님의 견결한 독립정신과 억

센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굳

진 하면 지팡이를 짚고 허기지

면 생눈을 움켜삼키면서도 뒤

를 돌아보거나 주춤하지 않고

곧바로 혁사의 새벽길을 헤쳐

가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길은 아무리 멀고 험해도 끝

이 있는 법이고 밤은 아무리

깊어도 새날이 오기 마련이다.

만경대일기의 애국의 넋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

온갖 풍상고초를 겪으시며

일제와 싸워 마침내 조국해방

의 혁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그 나날에 김형직선생님의 지

원의 사상, 3대 각오, 동지회

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

총과 같은 모진 고생과 희생

불멸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오는 3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43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폭넓은 협상방침을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파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시어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혀주시였다.

동족대결의 죄많은 파거사로 하여 주눅이 들어있던 남측대표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파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으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였다.

하기에 남측대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 것을 확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북남사이의 대화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파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표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여 민족자주통일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지난 기간 해내외의 온 겨레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되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는 놀라운 전진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였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시고 혁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북파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은 외면한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나, 『통일대박』이니 하며 『흡수통일』, 체제대결책동을 날로 꼬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지나온 현실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통일도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결파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리행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 땅에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내외호전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야합하여 그칠 사이없이 벌리고 있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공화국의 진정어린 호소와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대규모의 전쟁연습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대결과 악화만을 거듭하고 있다. 말로는 『북남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명백히 대화상대방을 우롱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한 백두산위인이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시었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분열주의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북파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최광혁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안고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에 와보니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페어린 항일대전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된 자주의 새 나라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주석님은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생활과 3.1인민봉기의 류혈적인 참극을 직접 목격하시며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였다.

배움의 천리길에 이어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암록강을 건너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둘 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시고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사실 그때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독립운동가들은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파별싸움이나 말장난으로 시간을 헛되이 흘려

보내군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페어린 항일대전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된 자주의 새 나라를 세워주시였다.

이번 태양절에 조국에서 성대히 진행된 4월의 봄인민예술축전과 김일성화축전을 비롯한 모든 정치행사들은 주석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정말이지 조국의 밝은 오늘과 레일을 보며 김일성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앞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나가겠다.

재미동포 리국철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나는 날로 희하게 변모되는 조국의 벽찬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3.3.3봉파설』과 같은 요설을 뿐이며 『북조선의 봉파는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였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은 무너지지도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여왔으며 지금은 당당한 학보유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되어 세인의 찬란과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독단과 전횡이 살판치는 이 행성에서 조

선과 같이 미국에 대고 큰 소리치며 제 할일을 다하고 제가 선택한 자주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나라는 또 없다.

남조선의 집권자나 정치가들을 놓고 보아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만금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이 미군유지비를 섬겨바치다 못해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을 빤히 알면서도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주권부재의 남조선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파남의 판이한 두 현실은 자주와 인민중시의

해외동포들이 부른 노래

아이들의 목소리

재중동포 김영일

어리둥절해진다
정말 여기가 아이들이 사는 곳
이냐
평양육아원, 애육원이여
한폭의 그림파도 같구나

그 어느 명화가인들 그려낼수 있으랴
이 아름답고 응장한 아이들의 궁전을
그 어느 명시인도 노래할수 있으랴
아이들의 저 밝은 웃음을

외국의 손님들도 말한다지
자기 아이들도 여기에서 키우고 싶다고
일곱달된 나의 손자도 여기에 세워보며
나는 온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구나

너희들의 그 밝은 웃음
멸지들의 『북인권』 타령 짓누른다
북을 삼키려는 어종이며 종이들
그 침략의 검은 구름도 삼키지 못한다
너희들의 밝고 밝은 그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모신 조국땅에
우리의 마음 향기되어 넘치라고
태양을 향하여 피는 꽃나무를
풀라
알알이 꽃씨를 모았습니다

소박한 마음뿐인데
조국위해 한일 적을 뿐인데
조국의 일군들 인사를 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송구스럽습니다 그 인사 받기가

꽃피는 4월이 있어
이역에서도 궁지높은 우리의 삶이 있어
조국의 4월에
한뼘기 꽃이라도 더 피우고 싶은 마음
그 진정을 바치는것이

재중동포 황경애

이역에 살아도
마음은 조국의 계절에 사는 우리들
꽃피는 4월의 조국에
진귀한 꽃나무 수천 그루를

우리의 마음

재중동포 황경애

큰아이 작은아이
꽃잎 같은 작은 입을 열어
나를 빙기누나
『할머니』, 『할머니』

정치가 떨쳐지는 공화국에 민족의 정의가 있고 밝은 미래도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젊으신 위대한 령수를 모시여, 자주적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강의한 군대와 인민이 있어 태양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금 절절히 느끼였다.

나는 봄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조선민족의 한성원이 된 궁지를 안고 앞으로도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쳐가겠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김수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치와 전망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3)

최근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수산업발전에도 큰힘을 돌리고있다.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의 중요방도의 하나가 바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국가에서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가까운바다는 물론 먼바다, 깊은바다의 물고기들도 더 많이 잡아내고 바다가양식사업도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준수를 높여야 한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 수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領導에 황금색의 새혁사를 펼쳐지고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어디 가나 풍기고있다.

국가적인 관심속에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수산사업소들이 새로 더 일떠섰고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계속 무어져 바다로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 새로 무은 배들에 『단풍』이란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여기에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바다에서도 풍년든 가을을 안아올것을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지금 나라에서는 인민

군대가 물고기잡이에서도 기치를 들고 맨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하여 황금색의 새혁사를 쓴것도 군대의 수산부문이다. 그뒤를 따라온 나라의 수산부문이 떨쳐나서고있다.

1월 8일 수산사업소,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비롯한 도처의 수산사업소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려가고 하루장들에서는 물고기폭포가 쏟아져내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서해지구 수산부문 어로공들은 이번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20여 일동안에 1만여t의 어획고를 기록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양어의 튼튼한 토대도 있다. 이에 기초하여 양어기지들을 현대화하고 양어사업을 과학화하는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연 바다가 양어사업소, 통정양어장, 평양메기공장 등을 찾으시여 양어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양어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물고기먹이 문제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어분사료가 없으면 많은 품을 들여 도처에 양어장을 전설한 보람도 없게 된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먹이문제를

풀기 위해 어분사료공장이 새로 현대적으로 건설되었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까나리, 멸치, 도루미기 등을 가지고 철갑상어사료, 철색송어사료, 통정어사료를 비롯한 각종 어분사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어분사료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료와 대비해도 짜지지 않는 고품질인 것으로 하여 양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있다.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는 어구종합공장도 새로 일떠세웠다.

이 공장에서는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의 기본생산수단들인 그물과 바줄, 양식폐들을 비롯한 전문수산사업소용 어구재들뿐만 아니라 섬과 해안선을 비롯한 작은 규모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덤장, 호망, 자망을 비롯한 어구들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나라에서는 생산 경쟁의 열풍속에 국영수산기지들뿐 아니라 수산협동조합들에서도 크고 작은 배들을 이용한 물고기잡이와 양어,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수산물생산에 한몫하고 있다.

수산물생산이 부쩍 느는 것과 함께 수산물가공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식탁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에 따라 서해의 금산포지구에 맛좋은 젓갈가공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젓갈가공공장건설이 다그쳐지는 속에 농금포지구에도 절임과 건조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굴지의 수산기지가 일떠서고 있다.

지난 3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과 사업소가 일떠서게 되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젓갈물을 공급해주시려고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당에서는 이 대상을 중요하게 보고 지난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건설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젓갈물을 하는 우리식의 공장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되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은 젓갈물을 안겨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의 구상을 받아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군대와 인민이 있어 앞으로 나라의 수산사업에서는 더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국가계획위원회 처장 김인수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을 맞아 요즘 평양시내에서 도 사랑을 약속하며 행복의 첫날을 보내는 신랑, 신부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운다. 그때문에 시내의 모습도 더 밝고 아름다워졌다. 오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저마다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신랑, 신부들의 모습에서 특별히 시선을 끌게 하는 것은 첫날웃차림이다.

며칠전 거리를 거닐다가 나도 보았었다. 흔히 보아왔던 양복차림대신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신랑의 모습을.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조선바지저고리에 허리춤에는 노리개까지 찼었다. 수집은듯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조선치마저고리를 봄바람에 날리는 신부의 아랫다운 모습 또한 거리의 풍경을 장식하는 듯싶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속에서 두 처녀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신랑이 바지저고리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게 참 많아졌어.』, 『얼마나 보기 좋아. 신랑이 더 돋보인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민족이 제일 이야.』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미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는 사진사의 등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 사진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평양민속공원에 꾸려진 단군릉과 거북선, 천

정 날 웃

으로 수놓아질 기쁜 날 가장 화려한 옷을 고르고 싶었을 그들이 차려입은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시내의 곳곳에서 조선바지저고리를 첫 날웃으로 밭쳐입고 신부와 나란히 사진을 찍는 신랑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그 때문에 신랑도 더 돋보이고 민족의 향취도,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봄의 정취도 한껏 풍겨나니 이 얼마나 좋은가.

볼수록 더 보고싶은 그 첫날웃차림새에 민족성을 고수하고 날로 더욱 꽂퍼워가고 있는 공화국의 정책과 현실이 그대로 어리여있어 사람들의 감동을 더욱 자아낸다.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



운색채를 농촌풍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유화 『무희의 휴식』 (1938년)은 리쾌대가 제5회 록포사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된 작품으로서 조선민속무용복을 입고 있는 무용수를 그린 것이다. 그는 조선화의 표현형식을 도입하여 조선적인 맛을 내려고 시도하였다.

유화 『탁상우의 정물』은 파일을 몇 알 구성하여 재치있게 그려낸 작품으로서 당시 화단의 관심을 모았었다.

유화 『봄처녀』 (1940년 말)는 봄계절에 붉은저고리와 연한 감색치마를 입은 처녀가 탐스러운 머리태를 매만지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화가는 이 작품에서 무용수의 휴식보다 웃을 더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처녀는 어딘가 수심에 잠겨있는 듯 한 표정이다. 배경에 보이는 농촌마을의 전경은 당시 우리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을 말해주는 듯 어둡고 슬슬하고 한적한 풍경이다.

조선적인 유화의 특성이 잘 안겨오는 이 작품은 봄을 맞는 자연의 싱그러

최명수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민족의 빛을 화폭에 수놓아온 리쾌대 (1)

당시 그의 아버지는 넓은 땅과 교회당까지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였다.

이러한 농촌부호의 가정에서 미술가가 나온데는 12살우인 그의 형의 영향이 커다. 그의 형은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여 감옥살이도 하였으며 조선화화가로서 우리 나라 역사와 관련한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리쾌대는 소년기부터 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나날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는 그림도 잘 그리였다. 학교에서 미술에서는 유품인 담임교원의 권유를 받아 리

쾌대는 형처럼 미술가가 될 것을 결심하고 미술공부에 달아붙게 되었다.

1932년 19살청년으로 자라난 리쾌대는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유화 『정물』을 내놓았으며 그해 가을에는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에 유화 『자화상』을 출품하여 종합회회부 학생작품중에서 3등상을 받았다. 미술에 대한 열망에 넘친 그는 1933년 서울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기로 하였다.

돈있는 집 자식으로서 운명적인 고학이 아니라 근심걱정없는 류학이였다.

그는 일본제국미술학교 (현대일본도교무시노미

술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였다.

리剀대는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하는 기간 애국적인 경향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백우회를 설립하였고 그 단체가 일제의 탄압을 받고 해체된 후에는 조선학생들과의 교우를 더욱 두터워하였다. 1938년 그는 일본에서 공부하던 조선학생들이 망라되어 진행된 재도교미술학생종합전에 습작품을 전시하였다. 그는 항상 조선학생이라는 민족적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학생들보다 실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넉넉한 집안살림으로 생활걱정, 학비걱정은 하지 않았으나 식민지조선의 청년지식인으로서 수모와 천대를 당하면서 조선적인 것, 민족적인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곤 하였다.

유화 『2인 초상』

(1939년), 유화 『부녀도』 (1938년), 『탁상우의 정물』, 『녀인의 초상』들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유화 『부녀도』는 조

선치마저고리를 입은 두

1939년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돌아온 리剀대는 조선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제2회 신미술가협회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당시 중견부류의 화가들인 리상범, 고우성, 길진섭, 심형구, 김용준, 문학수, 최재덕과 함께 민족미술의 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해 미술학교도 설립하였다.

해방전 리剀대의 창작에서 활성기는 1930년대 말~1940년대 말이었다. 그의 창작활동을 보면 학구적이고 대상묘사를 높은 수준에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묘 『2인 초상』

(1939년), 유화 『부녀

도』 (1938년), 『탁상우

의 정물』, 『녀인의 초

상』들은 그 대표적인 작

품들이다.

유화 『부녀도』는 조

선치마저고리를 입은 두



유화 『3.1인민봉기』 (1959년)

유화 『고황을 떠나는 사람들』 (1961년)



유화 『농악무』 (1957년)

불미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근 두달동안 남조선의 하늘과 바다에서 미친듯이 벌어진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얼마전에 끝났다. 미군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첨단핵전쟁장비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으로 인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축족발의 전쟁접경에 치달았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보수파당의 전쟁소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하여 지난 3월 5일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전쟁연습중단을 요구하며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를 징벌하는 전례없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일부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는 『훈련이 끝나면 남북관계가 풀릴수 있다.』느니, 『새로운 대화국면, 관계개선의 물꼬가 다시 트일수 있다.』느니 하는 발언이 울려나오는가 하면 그 무슨 문이다.

대결의 본심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번 전쟁연습의 강행으로 남조선당국의 본심이 외세와 함께 무력으로 동족을 치자는 데 있다는것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올해 초 공화국은 신년사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것을 중요하게 호소하였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학근이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신년사에 호응하여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현 합의를 열고 전체 조선민족

에게 보내는 호소문까지 발표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귀에 새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선의와 진심을 무력대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진정성』이니 뛰어나는 말로 우롱했고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인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중지요구에 대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판에 박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끝끝내 강행해나선것이 바로 남조선보수파당이다.

이런 식으로는 백년이 가도 전쟁소동과 그로 인한 북남관계파탄과 긴장조성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될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이 엄중하기때문에 이미 지난 1992년에 북남

『협의』니, 『당국간 대화』니 하는 소리들도 터져나오고 있다.

겨레가 한결같이 반대배격하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 때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던 자들이 갑자기 선량한 마음이 생기기라도 해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것이다. 저들이 할짓은 다하고 망가뜨릴것은 다 망가뜨려놓고 이제 와서 수염 뼈 쓸고 태연하게 말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놀라울따름이다.

최근에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진 전쟁연습들은 연습기간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은 듯이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북남관계와 동족을 대하는 남측당국의 근본적인 관점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이 초래한 엄중한 후파도 그저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남조선에서의 합동전쟁연습을 중지시킨 전례도 있다. 남측이 진정으로 신뢰와 대화를 원한다면 공화국과 온 겨레가 그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남측당국은 전쟁위험을 막고 관계개선의 새력을 써나가자는 공화국의 호소를 외면하고 『북조선봉파』를 떠드는 침략적인 미국의 편에 서서 대규모전쟁연습을 끝내 강행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직결된 소중한 북남관계를 외세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의 제물로 삼는 죄악을 저질렀다. 동시에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와 외세와의 북침전쟁소동 가운데서 어느것을 더 중시하고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연습이 초래한 후과는

이번 전쟁연습이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에 끼친 엄청난 해독도 단단히 계산할 문제이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것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기에 공화국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으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성의와 노력은 남측당국의 변함없는 대결자세, 전쟁책동으로 인해 응당

『신뢰』니, 『대화』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그들의 말이 한갓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본심은 체제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있다는것이 립증된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진행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적용된 작전개념으로 보나, 훈련에 동원된 수십만의 무력이나 전쟁장비들로 보나,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대규모상륙작전을 비롯한 훈련의 내용들로 보나 명백히 『방어』가 아니라 북침을 위한 위험천만한 실전연습이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까지 불사하려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기도가 더욱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보수당국이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대화』 타령을 들고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연하다.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에 의해 전쟁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박해오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전쟁연습의 강행으로 북남관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의 년륜이 70돌기를 새겨오는 2015년의 이해에 대결과 파국으로 점철되어온 북남관계를 개선의 바른 궤도에 옮려세우라는 겨레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공화국의 년초의 호소도 민족의 이런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그러나 연습의 강행으로 모처럼 조성될번 한 대화의 분위기와 기회는 날아나고 지난 해와 다름없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보수당국이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대화』 타령을 들고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까지 불사하려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기도가 더욱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보수당국이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대화』 타령을 들고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연습의 강행으로 모처럼 조성될번 한 대화의 분위기와 기회는 날아나고 지난 해와 다름없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보수당국이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대화』 타령을 들고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이제 8월에 가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면 북남관계가 또다시 최대로 악화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수십년이 반복적으로 흘러왔고 지금처럼 나간다면 올해에도 래년에도 전쟁연습강행과 북남관계파국이라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책동에 리용당하고 민족에게는 백해무익한 이런 불미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의 밝은 지평을 열수 없으며 민족이 바라는 통일에로 나아갈수 없다는것은 수십년간의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진리이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를 말하기 전에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강행으로 겨레의 가슴에 칼질을 하고 북남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한 범죄적책임부터 인정하고 반성해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①. ②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군과 남조선군
③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성완종사건이 지난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났다.

알려진것처럼 성완종사건은 지난 4월 9일 전경 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자기가 현 집권자의 측근들에게 수많은 정치자금을 섭취바친것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것으로 막을 올렸다. 성완종이 남긴 유서에는 현 청와대비서실장 리병기와 전 비서실장들인 허태열과 김기춘, 『국무총리』를 하던 리완구, 경상남도 지사인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를 비롯하여 현 집권자의 측근인물 8명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에

게서 엄청난 돈을 넘겨받았다고 적혀있었다.

한편 성완종은 자살하기 전 자기는 『친리계』가 아닌 『친박계』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토사구팽』 격으로 이제 와서 자기를 정치자금으로 바

고 여론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려 저들의 권력유지 위해 보수집권세력이 들고나온것이 바로 『부행위』라느니, 『증거가 나오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느니,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하겠다』느니 발뺌질을 한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종사건이 터자 리완구를 비롯한 장본인들이 성완종 『개인에 의한 부패행위』라느니, 『증거가 나오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느니,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하겠다』느니 발뺌질을 한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리완구를 사퇴시키고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 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현 집권자는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남을 시켜 대

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정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격분을 터뜨린것은 당연하다.

새 정 치 민 주 련 합은 28일 현 집권자의 『대국민담화』를 야당에 대

부패의 진폐에서 벗어날길 없다

치려는 현 보수당국에 올분을 토로하였다. 그러면 그는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소리지르고 있다면서 부패척결의 대상은 리완구와 같은 현 집권자의 측근세력들이라고 절규하였다. 옳은 지적이다.

최근 『세월』 호사건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달래

술한 돈을 섬겨바친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성쌍고 남은 돌로 된 자기를 제물로까지 삼으려고 한 보수당국에 환멸을 느낀 성완종은 더 이상 참을수 없어 현 보수집권세력의 부정부패행위를 만천하에 밟가놓은것이다. 보수당국은 사냥개를 잡으려다 오히려 땅을 물린 상태이다. 성완

독한 『대국민담화』라는 데서 리완구의 『사의』를 수용하는 말 몇마디 끝에 『유감』이나 표명하면서 성완종사건과 관련하여 민심이 요구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 무슨 『엄정한 수사』를 떠들면서 생뚱같은 『성완종특별사면』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시

『집권세력의 몸통이 뿐이며 련루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조직에 돈이 흘러간 사건이다. 박 대통령이 마치 천상우의 심판관처럼 말할 척하는 아니다. 『사면(성완종특별사면) 문제를 끄집어내서 물타기하려는 집권여당의 적반하장도 가 우리 국민을 더욱 격분케 하고있다.』, 『혹당사자들 모두 혼직에서 물리나 수사에 전면 응해야 한다.』 라며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성완종사건으로 떡줄을 단단히 물린 현 당국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것은 부패한 현 보수집권세력을 통채로 파멸에로 몰아가는 시간만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로동자, 서민착취정책 당장 폐기하라》, 《끌내자! 박근혜 <정권>!》



승리 할 때 까지

5월 1일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로동자들이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단행한것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8시간로동제의 구호를 들고 련대투쟁을 벌렸다.

로동자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한 시카고로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이 일어난 5월 1일을 해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현대성과 전투적위력을 시위하는 날로,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고있다.

그때로부터 근 130년이 되어오지만 오늘 자본주의는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로동자들을 자본의 철쇄로 얹매여놓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매일 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로동자들의 총파업도 《개혁》의 미명하에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보다 악랄하게 착취하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일어난것이다.

현 집권자가 올해초

《경제개혁 3개년계획》이라는것을 내걸고 《경제회복》과 《민생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평화듯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모방한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로동시장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은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들을 죽음에로 내몰기 위한것으로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실오리같은 생존권마저 잃어가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이 이에 분노하여 또다시 투쟁에 일떠선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로총은 남조선의 16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다.

《로동시장개혁 등

로동자말살정책 폐기》, 《로동기본권쟁취》, 《최저임금 1만원쟁취》, 《공무원연금개악중단》등 그들이 든 정당한 투쟁의 구호에 합세하여 전교

조와 전공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도 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이들의 투쟁을 《경제가 심각한데 아무런 명분도 없는 파업을 강행했다.》고 하면서 《불법파업》, 《떼쓰기파업》, 《매국적행위》라고 오도하며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시키려고 날뛰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의 폭압에 주저앉는다면 《세월》호참사보다 더 한로동권의 참사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미국 시카고로동자들의 생존권의 요구가 21세기인 오늘에로 이어지고 있다는것은 삶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은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멈추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로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서는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본사기자 김정혁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간에 선체인양도 진상조사도 안되었다.

유가족들파이 남국민들과 함께 해외의 우리 동포들도 한마음으로 바랬던 정작 그것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진펄에서 벗어나고 지지부진한 지지를 올려보려는 《반짜효과》를 노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도 그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세월》호인양발표가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도 나돈다.

민일 겨울을 앞둔 9월~10월에 시작한다면 한두 달 작업하다가 겨우내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해봄이면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있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기 《대선》이 또 기다리고...

《세월》호인양이 보수의 세력제충전과 재집권을 위한 예정된 선전광고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조나 선체인양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었다는 소리다.

왜 이제야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준비하는가? 그러니 지금까지 구조나 선체인양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었다는 소리다.

그러나 《세월》호와 16일 국민들은 그 말의

함께 아홉명의 시신은 아직도 건져내지 못하여 바다속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서 파연 《세월》호가 장진녀 불파 같은 남의 짐 일이었던가.

박근혜 《정부》는 왜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그리도 두려워하는가.

혹시 선체인양이 위기탈출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성완종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경유착》과 부폐행위의 일단이 드러나 진펄에 빠진 황소풀로 눈만 더부리이고 있다.

그 진펄에서 벗어나고 지지부진한 지지를 올려보려는 《반짜효과》를 노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도 그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세월》호인양발표가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도 나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파업을 《매국적행위》라고 란인한다.

인민들의 《세금을 한푼 한푼 조개여 쏟나.》더니 돌아앉아서는 저저마다 수만금씩 꿀꺽해치우고 있다.

너무도 거짓말이 많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모든 진실은 《세월》호처럼 수장되고 모든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이다.

《세월》호를 하루빨리 인양하여야 아홉명의 유해도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고 사건의 진상이 뚜렷해지고 상별도 명백해진다.

지난해 5월 《대국민답화》에서 박근혜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하자고 하였다.

1년이 되는 올해 4월

《참뜻》을 알게 되었다. 경찰과 《근혜산성》, 물대포와 최루액, 폭압과 구속...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진행된 추모행사에 박근혜 《정부》가 준답이었다.

결국 《국민안전》이라는것은 《정부》가 다 알아할테니 잡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국민안전의 날》이란 움직하기만 하면 권력의 맛을 단단히 보게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있고 또 그렇게 강요하여왔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의 점심밥까지 빼앗으려 든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하면서 종동으로 가라고 한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파업을 《매국적행위》라고 란인한다.

인민들의 《세금을 한푼 한푼 조개여 쏟나.》더니 돌아앉아서는 저저마다 수만금씩 꿀꺽해치우고 있다.

너무도 거짓말이 많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모든 진실은 《세월》호처럼 수장되고 모든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이다.

《세월》호를 하루빨리 인양하여야 아홉명의 유해도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고 사건의 진상이 뚜렷해지고 상별도 명백해진다.

《진실을 인양하라!》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남국민들의 이 말은 우리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는 《그렇다.》하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1년이 되는 올해 4월 16일 국민들은 그 말의

국제문제

격차와 고통으로 열을것이 친 고립과 화낼 뿐이라

일본수상 아베의 미국 행각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일본의 폐망 70년을 앞두고 미국을 행각하는 일본수상 아베가 이번에 파거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는것이 세계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베의 미국행각에 벌써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지어 미국내에서도 파거 일본군이 저지른 성노예범죄와 같은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수상 아베는 세계의 면전에서 이를 거부하고 파렴치하게 행동하여 인류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27일 아베는 미국의 어느한 대학의 연단에서 파거 일본군이 저지른 성노예문제에 대한 질문에 《인신매매피해자들》이니 뭐니 하며 일제가 조직적으로 강압과 폭력으로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일부 개인들에 의한 문제로 둔갑시킨면서 일본의 특대형파거죄악을 부정하였는가하면 사죄와 배상에 대해 한마디 말도 비치지 않았다. 아베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그가 지난 시기 한 행동들을 분석하면서 세상사람들이 이미 예견하였었다.

22일 일본수상 아베는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한연설에서 2차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얼렁뚱땅 하고는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아시아국가들과 인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한 국회연설에서도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져있지 않다.》느니 뭐니 하며 일본이 파거에 저지른 침략전쟁이 정의인듯이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20일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한 일본당국자는 《(파자 담화와) 같은것이면 담화를 넌필요가 없다.》느니, 《(역대 내각의 력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느니 뭐니 하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인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침략》, 《사죄》 등 표현을 전후 70년담화에 담는것에 부정적인 티장을 표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정계에서는 파거 일본군이 아시아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침략전쟁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인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류행처럼 나돌고 있고 지어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강제연행, 유인납치하여 조직적으로 감행한 일본군 성노예범죄까지 합리화해 나서고 있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문제는 일본의 파거죄악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린이어 발견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뱀뱀스럽게 과

거죄악을 계속 합리화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문화연구소 소장은 1997년 일본의 무성이 《녀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일본의 재단법인에 의해하여 발간한 성노에 관련 자료집에서 일본군의 조직적인 성노예범죄를 증명하는 해당 문서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1940년 중일전쟁 당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한 일본군부대의 부대장이 산하 《위안소》의 관리자에게 발급한 것이다. 문서에는 《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소관리자가 위안부들을 련행하여 중국에 있는 일본부대로 올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문화연구소 소장은 《련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교과서에서 《련행이 아니다.》라고 서술한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동안 일본정부의 관여밀에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감행된 성노예범죄를 텁증하는 많은 비밀문서들이 발견되었지만 군부대장이 직접 관리자에게 련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고 강조하였다.

문화연구소 소장은 《련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조선여성들을 강제연행, 랍치, 유피하여 성노리개로 만든 치밀리는 인권유린만행의 진상을 력사속에 묻어버리려고 미쳐날뛰여도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과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집요하게 외부정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망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국제적고립과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도 어지없이 폭로되었다.

일본의 한 지역신문사 기자였던 그는 자신의 취재수첩을 공개하며 강제동원된 성노에 피해자가 실제로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취재수첩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라현의 해군비행장배치도에 《위안소》가 선명하게 그려져있다. 그는 당시 해군비행장공사에 조선인남성 3000여명이 강제동원되었고 녀성 20여명이 성노에로 끌려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엄연한 력사사료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매춘부》라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특대형반인륜성노예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지어 교과서들에서 까지 《종군위안부》, 《강제련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파렴치한 력사와 고통행위를 일삼고있다.

일본이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조선여성들을 강제연행, 랍치, 유피하여 성노리개로 만든 치밀리는 인권유린만행의 진상을 력사속에 묻어버리려고 미쳐날뛰여도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과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집요하게 외부정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망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국제적고립과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해외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

◆ 모란봉기념품상점을 찾아서 ◆

어디부터 가볼가? 역사 도시 평양의 유구성과 찬란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단군릉과 대동문, 련평정부터 올라가볼가, 풍치수려한 경치와 기암절벽들로 유명한 모란봉이며 대동강반을 거닐가, 아니면 독특한 건축술과 조형예술미를 자랑하는 창전거리와 교육자살림집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문수물들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기념비적 창조물들부터 돌아볼가?...

관광계절을 맞아 봄빛 넘치는 평양을 즐기어 찾는 외국의 관광객들과 해외동포들은 려장을 풀기도 전에 저마다 이런 속구구를 하며 손가락을 품아간다. 길지 않은 방문일정상 미처 돌아보지 못한 대상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 법.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으니 바로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개선문가까이에 위치한 모란봉기념품상점이다.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2002년 7월 평양금강산상점의 명칭을 달고 처음 문

을 연 때로부터 이곳 모란봉기념품상점으로는 해마다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즐겨 찾고 있다. 그들 중에는 조선에 오기 전에 벌써 친지들로부터 모란봉기념품상점에 들려 기념품을 꾹 사 가지고 올것을 부탁받고 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관광객들속에 널리 알려진 모란봉기념품상점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조선민족의 향취를 들풀고 간다고...

그도 그럴것이 이곳 기념품상점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미풍양속 그리고 약동하는 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과 인민의 천만가지 꿈이 꽂혀나는 눈부신 현실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각종 화보와 화첩들, 도서들이 진렬되여 있다.

이곳 상점의 장미영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선군 - 김정일 정치』 등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을

담은 도서들을 비롯하여 『조선문화유물도집성』, 『대동강반의 새 풍경』, 『통일화보』와 같은 화첩들, 김일성상계판작품 대집 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꽃파는 처녀』, 『춘향전』, 『청자와 넋』과 같은 조선예술영화를 수록한 CD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천하절경을 자랑하는 조선의 금강산과 묘향산, 칠보산의 풍경을 묘사한 조선화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민족적 정서가 그윽히 풍기는 조선 치마저고리 매대 앞에도 관광객들이 늘 북적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타향만리 이역땅에서 치마저고리를 입고 조선민족의 궁지를 안고 살겠다는 해외동포여성들은 물론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 날에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겠다며 저마다 플라드는 외국여성들의 모습도 이따금 볼수 있다.

조선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천혜의 특산물을, 산좋고 물맑고 공해

가 없는 조선의 천연수림과 심산계곡들에서 채취하고 정성들여 가공하여 만든 고사리, 령지버섯, 구기자, 산수유 등 진귀한 약초와 산나물제품들, 버섯, 산열매제품들도 맛과 향기가 뛰어나 수요가 높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자연이 준 최고의 종합영양보물고로서 건강에 필요한 물질이 균형적으로 포함된 왕별젖풀, 개성인삼제품 등 각종 건강식품, 보약들을 요구대로 구입하고 있다.

예로부터 유명한 고려자기와 놋제품들, 공예품들, 초물제품들에도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취가 한껏 넘쳐난다. 하기에 개선문을 참관하다가도, 풍치수려한 모란봉에 올랐다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란봉기념품상점을 잊지 않고 들리군 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다.

오늘 모란봉기념품상점은 공화국을 찾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흥법식



이곳에서 자라는 늘 푸른 떨기나무이다. 잎은 고무나무잎, 꽃은 철쭉꽃을 닮았으며 꽃의 색 같은 회다.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비격진천뢰

여있었다.

비격진천뢰의 나사통에는 나사대가 두개씩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나사대에는 나사홈이 10개, 다른 나사대에는 나사홈이 15개 폐워져 있고 거기에 압심지가 깊겨있다. 나사홈이 10개인 것에 압심지를 깊은 것을 『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쓰면 비격진천뢰가 멀어진 다음 비교적 빨리 폭발하게 되고 나사홈이 15개인 것에 압심지를 깊은 것을 『지』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쓰면 폭탄이 더디게 폭발하였다.

비격진천뢰는 외경이 330mm이면서 질량이 71.62kg인 별대비격진천뢰, 외경이 246mm이면서 질량이 39.39kg인 대비격진천뢰, 외경이 190mm이면서 질량이 17.90kg인 중비격진천뢰의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쓰이였다. 비격진천뢰는 무쇠로 주조되었는데 탄체는 등근 모양이며 거기에 두개의 불심지구멍이 나있었다. 내부에는 폭발장약과 파편의 역할을 하는 마름쇠들이 채워져 있고 신판장치가 있었다.

비

격

진

천

뢰

와

완

구

비격진천뢰와 완구



지지 않는다.

만병초는 이름그대로 만병에 효과가 있는 약초이다. 민간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쓰이고 있다.

만능약초 - 만병초

만

병

초

는

고

혈

압

, 당뇨병

, 신경통

, 관절

염

, 양기부족

, 간경변

, 축

농증

, 중이염

, 등

갖가지

병에

효과가

있다.

만

병

초

를

달

인

차

를

오

래

마

시

기

와

같

이

는

죽

을

치료

하는데

도

쓴다.

만

병

초

는

균

을

죽

이

는

힘이

강

하

여

무

좀

습

진

같

은

피부

병

을

치료

하는데

도

쓴다.

만

병

초

는

진

정

신

이

는

화

장

을

죽

이

는

피부

병

을

치료

하는데

도

쓴다.

만

병

초

는

진

정

신

이

는

피부

병

을

치료

하는데

도

쓴다.

만

병

초

는

진

정

신

이

는

피부

병

을

치료

하는데

도

쓴다.